



“휴대폰 화면에 붙이면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요”

삼성 사내벤처 출신 강석명 대표 초기 노안 사용자 제품 개발 수정체 대신에 글씨 초점 모아줘

PC화면·게임용 등으로 확대

40대 들어 원시 노안을 경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손에 든 책 또는 휴대폰을 멀리 거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인생 벤처 기업) 픽셀로가 개발한 ‘노안 교정 필름’은 휴대폰 화면에 부착해 글씨를 선명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필름과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사용자 상황에 맞춰 화면을 교정한다.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쓰고 싶지 않은 초기 노안 사용자가 주요 타겟이다.

◆모바일용 ‘노안 교정 솔루션’ 개발 픽셀로의 화면 교정 필름은 탄력이 부족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휴대폰 글씨의 초점을 뒤로 밀어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미세하게 설계된 플라스틱 마이크로필름을 휴대폰 화면에 부착한다. 이어 휴대폰 전용 앱을 내려받는다. 앱을 통해 휴대폰 사용자는 자신의 눈 상태를 진단받고, 앱은 최적의 화면 보정 이미지 프로세싱을 제공한다. 교정 필름과 앱 기능이 결합해 노안을 보정해주는 것이다. 회사 측은 해당 필름의 두께가 0.8mm



강석명 픽셀로 대표가 돋보기 안경처럼 화면을 보정해 주는 노안 교정 필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하에서 사용자가 손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터치감 및 투과율이 기존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대체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필름 효능을 검증하는 사용성 평가를 하고 있다. 강석명 대표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화면에 눈이 많이 노출된 30대 후반에서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갤럭시와 아이폰의 주력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 앱에선 스스로 노안 테스트를 해보고, 눈 운동법을 배우고 인근 병원 및 안

경원 정보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업 나와 창업 도전 강 대표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씨랩(C-Lab) 출신이다. 2000년 입사한 뒤 디스플레이 개발 부서, 삼성전자DMC연구소 등을 거쳤다. 2016년 6월 씨랩 파견으로 노안 교정용 화면 필름이 선정되면서 강 대표와 동료들이 2017년 말 스피노프해당 연구결과로 창업했다. 강 대표는 “주변에서 창업에 반대했지만 머릿속의 기술을 자유롭게 제품으로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창업자로 변신하는 게 쉽지 않았다. 지난해 초 삼성벤처캐피

픽셀로	
설립	2017년 12월
위치	경기 의왕시 인덕원
제품	휴대폰 노안 교정 필름
특징	앱과 연동해 화면 교정

탈의 투자를 받았다. 강 대표는 “노안 필름은 설계, 금형 등 개발비가 단계별로 수천만원씩 든다”며 “인건비와 각종 과학 실험 장비 구매비 등 경영상 신경 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사업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노안 교정 필름을 개발하면서 ‘캐시카우’로 휴대폰 프라이버시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에서 타인이 화면을 훑쳐볼 수 없도록 한 보호 필름을 케이스와 결합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며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일본 회사 모투모 등과 판매 계약을 논의 중이다.

그는 노안 필름의 유통망 구축을 위해 국내 주요 안경원과 단말기 및 통신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안 필름을 PC화면 등으로 확대하고 게임 전용·어린이 전용·저시력자용·난시용·근시용 등 다양한 기능성 필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이메일 (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0월 ‘자중인’ 정한성·장관섭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진화스너, 고강도 볼트 개발 영광YKMC, 아노다이징 선두



정한성 대표, 장관섭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와 장관섭 영광YKMC 대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진화스너는 국내 처음으로 스테인리스강 육각볼트를 개발하고 K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고강도 볼트를 비롯한 다수의 제품에 KS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4차원 시각화 프로그램을 구축해 경영·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에 집중한 결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달러 수출탑’과 함께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미국 특허청에 상표권(SIF) 등록과 발전 플랜트 부문의 해외 규격 인증을 취득해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체제를 갖췄다. 인코넬, 티타늄 등을 소재로 하는 특수제품을 개발·생산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영광YKMC는 금속 피막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기술인 아노다이징 분야 선두

기업이다. 가공과 세척, 아노다이징, 제품조립 등 모든 공정이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 및 관련 제품 가공, 표면처리, 정밀산업 부품 제조 등 다양하다.

영광YKMC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2017년 ‘2000만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국내외 납품하는 제품 수가 100여 개에 달한다. 영광YKMC는 2017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출산장려금 제도와 석·박사 장학금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보로노이, 폐암 신약 후보물질 첫 공개

29일 美 보스턴 ‘암 치료 학회’ “약효 우수하고 독성 낮아”

신약개발회사 보로노이는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분자 타겟 암 치료 학회’에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연구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암 치료 학회는 미국암학회(AACR), 미국국립암연구소(NCI), 유럽암학회(EORTC)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에 발표하는 보로노이의 신약 후보물질 ‘VRN 071961’은 EGFR(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을 감지하는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폐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보로노이는 학회에서 VRN 071961

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VRN 071961 경쟁 물질로는 일본 다케다가 개발 중인 TAK-788과 미국 스펙트럼이 개발 중인 포지티비 나피 있다.

보로노이 측은 “VRN 071961이 경쟁물질에 비해 약효가 뛰어나며 독성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쟁사가 개발한 물질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반면 VRN 071961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보로노이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VRN 071961의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금호전기, 식물재배용 LED로 성장하는 미국 시장 공략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전문기업 금호전기가 식물재배용 LED 제품을 앞세워 미국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호전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 지역 업체와 각각 가정용 및 상업용 식물재배 LED 제품 판매에 대한 제휴를 맺고 LED 조명 판매를 확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연간 900만달러(약 105억원) 규모의 상품을 미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의 식물재배용 조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호전기에 따르면 지난해 38억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였던 미국 식물재배용 조명 시장은 2023년엔 60억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금호전기 관계자는 “미국에서 마리화나의 가정용·상업용 재배가 허용되면서 식물재배용 조명시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상생형 군산 일자리’ 숨은 주역 이상직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뉴스카페 GM공장 폐쇄 후 동분서주

정부가 전북 군산 일대의 옛 한국GM 공장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광주형 및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다. 업계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으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을 꼽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GM 군산공장 폐쇄 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민·정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위한 기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해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작·간접 일자리 1만2000여 개가 사라지는 등 군산의 고용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군산지역에 중소기업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정부 협의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의견 조율 등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왔다. 중진공은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GM 군산공장 활용 투자희망 중소기업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올 1월엔 군산 현장에서 ‘GM협력 부 품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3월에는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전기차산업협회를 발족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이사장의 노력으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와 같이 전기차 분야 선두업체들이 참여하게 됐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정과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등 대정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에디슨모터스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협동화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락앤락 ‘워너비 텀블러’



락앤락이 ‘워너비 텀블러(사진)’를 27일 출시했다. 워너비(wanna-be)라는 이름처럼 누구나 갖고 싶은 만큼 뛰어난 기능을 지닌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원형 외관은 차분한 색상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뚜껑은 돌려서 여닫는 스크류형과 누르는 타입의 원터치형 두 가지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의료용으로 쓰일 만큼 안전한 스테인리스 스틸 316 소재를 용기 내부에 사용해 열분해에 강하고 부식 위험도 낮다. 내부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 음료 잔여물이 달라붙지 않는다. 냄새와 색이 잘 스며들지 않고 세척도 편하다. 제품 둘레가 13cm로 한손에 잡기 쉽다. 무게는 22g으로 가볍다. 가격은 2만원대.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비전공자도 쉽게 배우는

산업별 프로젝트 기반 빅데이터 전략 마에스트로 과정

교육비 전액 무료 (1,700만원)

식비/교통비 지급

비전공자 환영!

빅데이터 공모전

교육생 취업 연계

교육기간 2019년 11월 25일~2020년 05월 22일 / 총 960시간 (월~금, 09:30~18:30)

교육대상 · 졸업예정자 (2020년 3월 이전 졸업가능한 자)
· 졸업 후 만 34세 미만 미취업자 (재직자 참여불가)
※ 학력 및 전공 무관 (단,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은 기졸업자에 한함)
※ 우대사항: 과기정통부 SW역량평가(TOPCIT) 성적우수자 (300점 이상자)

교육인원 제주도 1개 반 (24명),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교육진행

신청전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대상자 개별연락) → 선발

신청방법 <http://빅데이터.지원하기.com>

교육문의 [한국경제신문] 02-360-4883, lshbiz@hankyung.com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751, kimjy@jejutp.or.kr

마감일 기준
1차 모집: 11월 6일 (수) | 2차 모집: 11월 15일 (금)

※ 1차 조기마감시 모집종료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JTP 제주테크노파크